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보안원

보도	2026.4.30.(목) 석간	배포	2026.4.29.(수)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석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노경록	(02-3145-7130)
	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 AI혁신부	책임자	센터장	황종모	(02-3495-9300)
		담당자	팀 장	유영목	(02-3495-9310)
			팀 장	송은지	(02-3495-9880)

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합니다

- 훈련 체계 전면 강화 및 대고객 AI 서비스 대상 레드티밍 최초 도입 -

□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5월에서 6월 중 2026년 상반기 「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」을 실시합니다.

○ **블라인드 모의해킹**은 금융권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**사전예방적 대응 역량을 강화**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,

○ 공격 일시와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**화이트해커의 불시 공격**을 통해 금융회사의 **해킹 탐지·방어 능력**과 **비상 대응 체계**를 **점검**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

□ 특히, 올해에는 최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과 금융권의 침해사고 양상을 반영하여, **훈련 횟수**를 종전 **연 1회에서 연 2회**(상·하반기)로 늘리고, **훈련 대상, 기간, 공격 유형**을 **확대**하는 등 보다 **강도 높게 실시**할 **예정**입니다. [1차 : '26.5월~6월 , 2차 : 하반기 별도 통보]

○ **'AI 레드티밍***'을 **최초로 도입**하여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**생성형 AI 서비스**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**정보 유출 가능성, 비정상 응답 유도** 등 **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**에 대해 **대응 역량**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,

* AI 레드티밍 (AI Red Teaming) : AI 모델의 신뢰성,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커 관점의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하고 대응 적정성을 점검하는 모의해킹 기법

○ **불시 DDoS 공격, 서버 해킹, 모의 침투 훈련**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**해킹 탐지·차단 역량**과 **내부 대응 절차**의 **적정성·신속성** 등을 **중점 점검**하고

○ **현장 방문 훈련**의 **대상·기간**을 **대폭 확대**하여,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**외부 접속 인프라, 네트워크 취약점, 보안 업데이트 적정성**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.

□ **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**는 "이번 훈련은 4월 7일 발표한 '**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**'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"으로,

○ "**횟수·기간·대상**을 **대폭 확대**했을 뿐만 아니라, **침해사고를 유발**하는 **주요 취약점**은 물론, **대고객 AI 서비스**를 겨냥한 **신종 보안 위협**까지 훈련 범위에 포함하여 **실효성 있게 실시**"하는 만큼

○ "금융회사의 **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**을 **강화**하고, **침해 사고를 예방**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"라고 밝혔습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모의해킹에 **참가한 금융회사**들이 훈련을 통해 드러난 **취약점**을 **즉시 보완**하도록 조치하는 한편,

○ **공통된 주요 취약점**과 **개선 필요사항**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**전파**하여 **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을 강화**할 계획입니다.

○ 특히, '**고성능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**' 등 최근 제기되는 **AI 기반**의 **신규 사이버 위협**에 대해서도 **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, **금융권 보안에 미치는 영향**을 **검토**하여 향후 **훈련**에 **반영**해 나갈 예정입니다.